

오차노미즈여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며

梨花女子大学

キム・キリム

오차노미즈여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부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문화와 일본어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일본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수업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본문화 수업에서는 일본의 종교와 음악, 예술, 대중문화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꽃꽂이와 기모노 등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을 경험 할 수 있는 교실도 있었습니다. 일본어 수업은 일상 회화부터 독해력 향상 까지 자신의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어 일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즐거워졌습니다.



유학중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 중 하나는 튜터 후지이 리에씨와 함께 신오쿠보에 가서 지하 아이돌 공연을 본 것입니다. 신오쿠보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거리에는 반짝반짝한 간판과 포스터, 카페가 즐비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지하 아이돌의 공연은 TV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박진감과 열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들과 최선을 다해 공연하는 아이돌의 열정에 압도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돌과 그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팬들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지이(藤井) 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다 깊게 일본의 팝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녀의 열의에 감명받아 잊지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유학 중의 또 다른 아름다운 기억은 오차노미즈 1학년 하루카씨와 함께 요코하마에 가서 야경을 본 것입니다. 관람차에서의 야경은 정말 별무리 바다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었어요. 바다에 비치는 밤하늘의 빛, 빛나는 고층 빌딩, 그리고 붉은 벽돌 창고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하나가 되어 그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마음에 깊이 새겨진 멋진 체험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일본문화와 일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훌륭한 친구들과의 만남과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멋진 경험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환학생으로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제 유학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큰 요소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귀중하며 평생 우정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많은 추억과 배움을 저는 앞으로의 삶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모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노미즈여대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